

HOME (/) > [문화예술 \(/news/articleList.html?sc_section_code=S1N4\)](/news/articleList.html?sc_section_code=S1N4) > [갤러리 초대석 \(/news/articleList.html?sc_sub_section_code=S2N78\)](/news/articleList.html?sc_sub_section_code=S2N78)

필립 미쇼-뤼즈, 「봄(PMR21-08)」, 2021.

👤 하혜린 | ⌚ 승인 2021.03.29 09:22



필립 미쇼-뤼즈, 「봄(PMR21-08)」, 2021, 원목에 아크릴과 윤모, 20X20X5cm.

인간은 결코 지평선에 다다르지 못하지만, 지평선은 계속 인간을 따라 움직인다. 지평선은 우리에게 명확한 경계로 기능하는 듯 보이지만, 그 경계는 자연의 선으로 추상화된다.

지평선을 주제로 작업하는 필립 미쇼-뤼즈(Philippe Micheau-Ruiz)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, 그 사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풍경에 관심이 있다. 그가 이끄는 지평선 풍경에는 공기와 하늘, 땅과 산, 불이 공존하며, 이들은 추상의 형태로 어우러져 융화된다.

실로 존재하지 않는 지평선이 우리의 시선과 맞닿을 때 어떠한 무한함을 획득하게 될까.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에서는 필립 미쇼-뤼즈의 첫 개인전을 오는 5월 29일까지 선보인다.

하헤린 기자 hhr210@kyosu.net

저작권자 ©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하헤린